



# 노홍석 권한대행 “국비 확보·재난 대응 빈틈없게”

### 하천 불법시설 엄정 대응 지시 '5극3특' 연계 전북 성장전략 강조 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당부

전북도는 12일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 대응,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물 관리, 농지 전수조사, 5극 3특 균형발전, 자연재난 대응 등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노홍석 권한대행은 먼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 대응을 주문했다. 노 권한대행은 “지금은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국내 경기 변화와 정부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 쟁점사업과 미온적 사업에 대한 대응 논리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노 권한대행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과 농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 대응을 지시하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농지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엄정히 집행해 투명하고 공정한 농지 관리 체계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하여서는 전북 주도의 성장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권한대행은 “정부의 '5극3특' 기조가 본격화되는 만큼 전북특별자치도라는 '3특'의 위상에 걸맞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 그동안 호남권 체계에 묶여 광주·전남에 편중됐던 공공기관 기능과 위상을 회복하고, 준보훈병원 지정 등 주요 현안도 '3특' 전략과 연계해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등 자연



<사진=전북도>

재난에 대한 선제 대응도 강조했다. 노 권한대행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인명 피해 제로화를 최우선 목표로 비상 대응체계를 조기에 가동하라”고 말했다.

특히 노 권한대행은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정 선거사 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고 SNS 활동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에도 각별히 유의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LS 한국미래소재, 군산에 친환경 소재공장 준공

### 군산국가산단에 450억 투입 건립 세계 최초 친환경 동박 소재 생산

전북도는 LS전선의 자회사 한국미래소재(주)가 군산국가산단입지에 친환경 소재 생산기지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날 군산 지스코에서 한국미래소재(주) 군산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전익수 한국미래소재 대표, 구분규 LS전선 대표이사 등 LS 계열사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이번 공장은 1만 6,576㎡ 부지에 총

450억 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한국미래소재(주)는 LS전선이 60여 년간 쌓아온 구리 소재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 전기와 신소재 사업을 위해 2024년 1월 출범한 회사다. 같은 해 3월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군산국가산단에 신공장을 짓기로 했으며, 착공 약 1년 만에 준공에 이르렀다.

핵심 제품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전해동박용 고성능 원소재 '큐플레이크(Cu-Flake)'다. 구리선재 대신 구리 조각 형태의 신소재를 원료로 사용해 동박 제조 공정을 4단계에서 1단계로 단축했다. 구리선재 대비 탄소 발생량을 87% 줄여 생산 효율성·원가 경쟁력·ESG 대

응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글로벌 동박 수요가 2030년까지 22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큐플레이크 양산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국산화와 K-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송배전용 친환경 저탄소 구리 LCCR(Low Carbon Copper Rod)도 본격 양산한다. 폐구리 스크랩을 정·제련해 재생동 와이어 로드로 만드는 소재로, 기존 광산 채굴 방식 대비 탄소 배출을 9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노후 송배전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이번 준공으로 군산국가산단은 친환경 첨단소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미래소재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글로벌 수요 확대에 맞춰 추가 투자·고용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합작 생산법인 구축 등 해외 진출도 병행하며, LS전선과 연계한 수직계열화 체계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춰 나갈 방침이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오늘 준공식은 세계 최초 기술로 친환경 동박 소재 시장을 선도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군산국가산단을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우주항공청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미래산업 연계 전북 비전 알려 현장기부·답례품 이벤트 호응

전북도가 12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는 우주항공청 직원과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전북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답례품을 소개하고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북의 성장 비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3월 현대로템과 무주군 일원 항공우주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우주항공 분야 핵심 기관인 우주항공청과 지역 상생의 가치를 함께 홍보했다.

현장에서는 전북도청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참여자에게 오미자청과 천연꿀 등을 제공하는 현장기부 이벤트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고향사랑e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도청'을 관심 지자체로 등록한

방문객에게 각 도정한 쌀(500g)을 증정하며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친환경 돌솥, 김부각, 숙박시설 이용권 등 전북의 대표 답례품을 전시하고, 일부 품목은 시식·시음 행사도 함께 운영해 현장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도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를 위한 후기 작성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기부 후 답례품을 신청한 뒤, 오는 26일까지 답례품 후기를 작성하면 머무와인, 박대, 천연꿀 등 3만 원 상당의 추가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백경태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과 지역 상생의 가치를 이끄는 핵심 기관인 만큼, 이번 홍보를 통해 전북의 고향사랑기부제와 미래산업 비전을 함께 알릴 수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전북을 응원하고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정동영·이성운, 전주 현안사업 특교세 39억 확보

### 정동영 21억·이성운 18억 확보 송천1동 공영주차장 조성 6억 등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정했고, 이성운 의원이 18억원을 확보했다.

정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 ▲송천1동 공영주차장 조성 6억원 ▲금암노인복지관 개발 6억원 ▲진기마을 상습침수지역 정비 5억원 ▲덕진 금암광장 분수대 증축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엘로우가렛 정비 2억원 등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송천1동 공영주차장 조성(6억원) 사업은 송천현대4차아파트를 비롯해 공동주택과 상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이곳을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금암노인복지관 개발사업(6억원)은 어르신 이용률 증가와 프로그램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간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불편이 지속, 본관 3층 증축과 실내 파크골프장, 프로그램실 조성, 외벽 정비 및 주차장 확충을 하기로 했다.

▲진기마을 상습침수구역 정비사업(5억원)은 집중호우 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상습침수구역으로,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 배수 펌프장 협좌물 제거장치 설치와 침수지역 준설을 하기로 했다.

▲덕진 금암광장 분수대 개선사업(3

억원)은 금암광장 분수대는 전주 주요 간선도로 중심에 위치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공간이지만, 현재는 하절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복합문화 랜드마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은 하나씩 줄이고, 전주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성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서신동 고사평길 일원 노후도로 정비사업 8억원 ▲효자동서관 주차장 확충사업 3억원 ▲홍산교 내진 및 보수·보강사업 5억원 ▲삼천(효천교 ~ 우림교 일원)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 2억원 등의 사업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서신동 고사평길 노후도로 정비사업은 도로 노후화로 균열과 포장 파손이 반복되면서 차량 통행 불편과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구간이다. 이번 사업으로 노후 도로 재포장과 정비가 이뤄지면 시민들의 교통 안전과 도로 이용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효자동서관 주차장 확충사업은 이용객 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상습적인 주차난과 혼잡했다. 이번 확충사업이 마무리되면 도서관 이용객은 물론 인근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도, 퇴직공무원 투입 자연재난 예방 강화

### '재난안전 지킴이' 현장 점검 돌입 경험·전문성 활용 관리 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퇴직공무원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재해위험지역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도는 인사혁신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재난안전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내 재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예찰·점검 활동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재해취약시설

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장 중심 재난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활용해 행정력이 미치지 어려운 재해현장을 보다 촘촘하게 살핀다는 계획이다.

재난안전 지킴이는 익산·남원·김제·완주·무주·장수·부안 등 7개 시·군에 총 14명이 배치되며, 2인 1조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활동은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여름철과 겨울철 재난 취약 시기에 맞춰 총 30일간 집중 예찰·점검을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하루 4개소 이상 재해위험지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여름철에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급경사지, 저수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시군별로 여름철 재해위험지역 60개소를 우선 점검하고 겨울철 점검 대상은 별도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장 중심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난안전 지킴이는 위험 요인을 확인할 경우 즉시 시군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시설물 보수·보강이나 주민 대피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현장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 실적과 점검 결과를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이 현장 점검 결과를 입력하면 도와 시·군이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확인해 위험 요인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12일 관계공무원과 참가자가 참석하는 사전 회의를 열고 점검 요령과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이와 관련, “퇴직공무원들의 숙련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재난 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후변화로 재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전기요금 절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



## LED조명으로 교체 하는 것이다.

백열등과 비교해 전기요금 80%절감효과

# 전주한옥마을 '시 스마트 관광지' 탈바꿈!

## AI 기반 안전·교통·데이터 통합 서비스 구축 스마트 관광환경 조성

국가대표 여행지 전주한옥마을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 관광지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정부 공모사업 '스마트블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과 스마트 주차,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관광객 안전과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 25억원(국비 17.5억원, 시비 7.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전주한옥마을과 공영주차장 일원으로 시는 AI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 중심의 스마트 관광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전주한옥마을 전역에는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시는 지능형 CCTV와 스마트폴을 활용

해 방문객 밀집도를 실시간 분석하고, 혼잡 상황을 신호등 형태로 안내해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스마트 주차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시는 전주시 공영주차장 49개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실시간 주차 가능 정보제공과 모바일 사전 정산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 데이터를 통합·활용하는 빅데이터 통합플랫폼도 마련된다. 시는 교통·환경·민원·상권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분석

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편의 수준을 동시에 높이고,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스마트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통문화 자산인 한옥마을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전주만의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시민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선풍기를 점검하고 고쳐 쓸 수 있는 선풍기 상담소가 운영된다 <사진=전주시>

## 여름 대비 선풍기 상담소 운영

"우리 물건은 우리가 고쳐 쓴다" 시민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 줄 선풍기를 점검하고 고쳐 쓸 수 있는 선풍기 상담소가 운영된다.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과 환경단체 프리데코는 오는 15일 탄소중립 완산마을에서 고장난 선풍기를 직접 점검하고 고쳐보는 '선풍기 상담소'를 공동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여름철을 앞두고 고장난 선풍기를 직접 점검하고 수리해 보고 싶은 시민들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가전을 쉽게 폐기하지 않고 직접 점검·관리해 보는 경험을 통해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선풍기 상담소는 제품의 구조와 고장 원인을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자는 선풍기를 가져와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작동 원리를 이해한 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단한 자가 수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 선풍기를 가져오지 않은 시민도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선풍기의 구조와 안전한 사용법, 기본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단, 모터 손상과 코일 소손, PCB 및 전자회로 불량, 고가 DC 선풍기 등 전문 장비가 필요하거나 복잡한 수리가 필요한 제품은 현장 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관련 기준은 사전 안내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운영되며, 1회차(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와 2회차(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총 2회에 걸쳐 운영된다. 신청은 링크프(bit.ly/선풍기수리)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정소민 기자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오는 18일 개시

## 국민 70% 대상 2차 신청 첫 주 5부제 운영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전주시가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신청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과 관련해 준비 상황을 재점검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

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염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소비 여건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 순환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까지 도모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이다. 시는 지난 8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청을 원활히 마무리한 데 이어, 이번 2차 신청에서도 신속한 준비와 체계적인 집행을 통해 정부 정책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1차 신청은 고유가로 인한 피해가 큰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약 2주간 지급됐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50만 원 등 차등 지급됐으며, 현재까지 전주시 전체 대상자 4만9790명 가운데 92.3%인 4만 5950명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소득·재산 기준

정리를 거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또 1차 지급 시기 미신청자의 경우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신속한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지급수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주시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 전주 대표 상품 '바이전주 우수상품' 신규 선정

## '2026년 바이전주 우수상품' 오는 21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

전주시는 오는 21일까지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한 '바이전주 우수상품' 신청을 접수한다. '바이전주 우수상품'은 전주시가 인증하는 지역 대표 우수상품 브랜드로,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제품·홍보물 제작 △온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판로 지원이 제공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신청 대상은 전주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업체로, 공산품 또는 농·수·축산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어야 한다. 또, 상품의 주원료가 전주산이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신청 기한 내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에 방문해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글파일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업체에 대한 실무부서의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쳐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이후 바이전주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심사에서 기업 건실도와 공공성, 상품 안전성, 시장성, 품질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생산시설 위생·안전상태, 생산공정, 제품 생산능력, 기술능력, 원재료 관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신규 지정된 5개사(13개 품목)와 재지정 17개사(21개 품목) 등 총 22개사를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인증했으며 총 7367만원 규모의 판로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시는 그동안 바이전주 우수상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이팝나무 축제 등 전주 대표축제를 비롯해 전북교육물품전시회

와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에 인증기업 참여를 지원해 왔다. 여기에 찾아가는 부서별 공공구매 상담과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재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바이전주 우수상품의 실질적인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역 우수제품을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해 판로를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식품과 생활용품, 전기·전자, 한지·지류 등 다양한 분야의 45개사 71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다. /정소민 기자



## 전북소방 '직접의료지도' 1789건 운영

현장서 응급의학 전문의바로 연결 어 환자 생존율 향상과 후유장애 감소 위한 핵심 응급의료 대응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올해 1월부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전북 단독 직접의료지도체계를 본격 운영한 결과 4월 말 기준 총 1789건의 의료지도도를 실시했다. 직접의료지도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구급대원의 현장 응급처치 과정에 실시간으로 참여해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전문적인 처치 방향을 지도하는 제도다. 특히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등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전문의와 직접 연계해 약물 투여와 응급처치 자문을 받을 수 있

#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모집

## 연간 35만원 수강료·교재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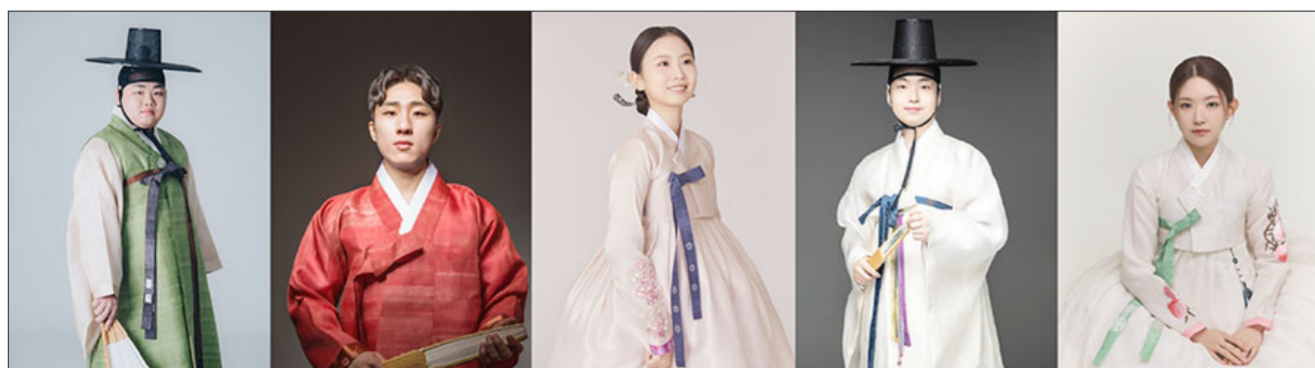
전주시가 올해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주 지역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

인 157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원 상당의 강좌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의 배우자 신청을 접수한다. 이용권 신청은 온라인 보조금24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시 △발급신청서 △개인정보 수

집 이동동의서 △이용자 약약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원 신청자가 예산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연령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30일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농협에서 채움카드를 발급받아 전국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의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강좌 모두 수강 가능하며, 이용 가능 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5인 확정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026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무대에 설 차세대 소리꾼 5인을 최종 선정했다. 선발된 소리꾼은 △수궁가 소장(1998년생, 전북 전주) △흥보가 최광권(1991년생, 전북 남원) △춘향가 이수현(2000년생, 경기 광주) △적벽가 고한돌(2001년생, 충남 공주) △심청가 박시분(2001년생, 서울)으로, 판소리 다섯바탕별 각 1인씩 총 5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다섯 바탕 중 수궁가와 흥보가 부

문에서 전북 출신 소리꾼이 선정되며 지역 전통음악의 저력과 계승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젊은판소리 다섯바탕'은 우리 소리의 맥을 잇는 동시에 새로운 감각을 더해 젊은 소리꾼들에게 무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리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기존 '청춘예찬 젊은판소리'에서 명칭을 변경해 보다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의 의미를 담았다. 또 2012년 처음 시작된 이후 지난 15

년간 유태평양, 김홍희, 정유형, 민은경, 김주리 등 젊은 판소리 스타들을 발굴·배출하며 한국 판소리를 이룰 차세대 신진 소리꾼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선정된 5인의 젊은 소리꾼들은 소리축제 기간 동안 바탕별 연창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소리 세계를 펼친다. 각 공연에는 관객의 이해를 돕는 해설이 더해지며 판소리를 처음 접하는 관객부터 애호가까지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구성된다. /정소민 기자

##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신청사 준공식 개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2지구대 신청사 준공식 행사가 12일 개최됐다. 고속도로순찰대 제12지구대는 지난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서김제영업소 내에 창설됐다. 하지만 청사가 비좁고 노후되어 사업비 약 44억6600만원을 확보해 2025년 2월부터 1월 1개월간 2,785㎡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273㎡의 규모로 준공했다. 이에 따라 신청사는 교통사고조사실 사무 공간을 확보해 민원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유실·장애인 민원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도 마련됐다. 제12지구대 신청사 준공식 행사에는 이재영 전북청장과 박승준 김제경찰서장, 이용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환경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개소 적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한달간 걸쳐 전북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11개 사업장(12건)을 적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 특별점검은 레미콘·아스콘 제조·가공업 등 비산먼지 중점관리기 필요한 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방진덮개 설치·운영 △세물·세차·살수시설 설치·가동 등 비영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적발 12건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야적시 방지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은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기준 미흡사항이 8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방진덮개를 전혀 덮지 않은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미이행이 3건(25%)으로 뒤를 이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도 1건(8.3%) 적발됐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8건), 개선명령 및 조치이행명령(11건), 과태료 부과(1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또 위반내용에 따라 경고(1건) 등의 행정처분도 병과된다. /정소민 기자

#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 탄원서’ 제출

### “상호시장 개방 더는 연기 안돼… 존립의 위기 직면할 수 있어”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전국 종합건설인을 대표해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회원사들과 함께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12일 제출했다.

탄원서는 종합건설업계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에 마련됐다.

건협은 탄원서를 통해 “2018년에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업역간 갈등 해소를 위해 2021년에 종합과 전문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건설업을 2030년까지 단

일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확정하 바 있는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전문업체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이나 막아 놓은 상황에서 보호기간이 올해 끝나게 되자, 전문업체는 다시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소재철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우리 종합업계가 지금까지 6년이나 어렵게 버텼는데 지금 또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문업체들만 영세한 것이 아니라, 종합업체들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 해 동



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소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된다면 영세 종합건설업체는 존립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사진=대한건설협회>

있는 만큼, 더 이상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농협>

## 전주농협, 상호금융대출금 1조5천억 달성

### ‘달성탑’ 전북최초 수상

전주농협이 전북최초 상호금융대출금 1조5000억원을 달성하며 영예를 안았다.

상호금융대출금 달성탑은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 건전경영을 포함한 내실 있는 신용사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시상제다.

관련해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은 전북본부 정례회를 통해 상호금융대출금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12

일 밝혔다.

전주농협 상호금융대출금 1조5000억원 성과는 △조합원 △고객 등의 지속적인 금융 지원과 안정적인 여신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주농협 경영 평가가 주도됐다.

이 자리에서 임인규 조합장은 “지속적인 지역사회와의 상생관계를 유지하며 농업·농촌 발전에 앞장서는 금융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TP ‘이차전자·반도체 소재부품’ 기업 모집

###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22일까지 신청

전북TP는 도내 이차전자·반도체 소재부품 기업 대상 시제품 제작·사업화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

이에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

는 ‘2026년도 이차전자·반도체 소재부품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은 이차전자·반도체 분야 소재·부품 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와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도내 이차전자·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규모는 총 3억6500만원이다. 분야는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마케팅 △투자 및 IPO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지역에 본

사·공장·연구소 등을 보유하거나 도내 투자 실적이 있는 이차전자·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 등이다.

한편 사업 신청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농진청, 바이오 데이터 협력 체계 강화

### 생명정보센터협의회 연수회

농진청(청장 이승돈)은 13, 14일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범부처 생명정보센터협의회 공동연수회’를 열고 범부처 바이오 데이터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선다.

공동연수회에는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농촌진흥청 슈퍼컴퓨팅센터 운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지원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국가보건임상연구 정보서비스(질병관리청 산하 기관), 국립생물자원관(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기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6개 정보센터가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중심으로 진행된 정보센터 간 연계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 관계 강화 방안 등

이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각 정보센터의 서비스 현황을 공유하고, 생명정보 기반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를 위한 실무 협력 방안과 관련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슈퍼컴퓨팅센터와 농업유전자원센터 등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의 주요 기반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중심 소통 시간을 가질 전망이다.

농진청 슈퍼컴퓨팅센터가 운영하는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는 작물 유전체 등 농생명 분야 오믹스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국가 정보 플랫폼이다.

최근에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K-BDS)과 연계해 범국가적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농생명 특화 거대 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경진원-북전주세무서 ‘찾아가는 세무서’ 개최

### 창업 초기 소상공인 1:1 멘토링 및 교육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소상공인희망센터는 지난 7일 북전주세무서와 손잡고 센터 입주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서 1:1 멘토링 및 교육’을 개최했다.

행사는 창업 초기 소상공인들이 경영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세무 행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세무리스크 사전 예방과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찾아가는 세무서에는 북전주

세무서 소속 세무 전문가들이 직접 희망센터를 방문해 기업별 상황에 맞춘 ‘1:1 심층 멘토링’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멘토링에 참여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요령부터 절세 노하우 등 평소 사업을 운영하며 궁금했던 세무 이슈들을 전문가에게 직접 묻고 명쾌한 해답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윤여봉 원장은 “앞으로도 북전주세무서를 비롯한 다양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입주기업들이 사업 본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밀착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희망



<사진=전북경진원>

센터는 도내 유망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독립된 사무공간을 비롯해 맞춤형 사업화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중기청, 풍수해 유관기관 합동 전통시장점검

전북중기청은 올해 장마철 대비한 풍수해 대비 도내 전통시장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사전예방을 펼친다.

이에 장상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2일 군산명사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풍수해 대비 유관기관 합동 전통시장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풍수해 특별안전점검은 그동안 장마철 태풍·폭우 등 풍수해에 침수 이력이 있거나 전통시장이 하천변 또는 저지대 소재 중심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북중기청은 전북지역 전체 전통시장 59개소 중 피해 우려가 높은 15개소 대상으로 우선 집중 점검할 계

획이다. 아울러 남은 44개소에 대해서는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각각 요청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 주요 점검은 △아케이드 누수 △배수로 관리상태 △의부 시설물 고경상태 등이다.

한편 전북중기청은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이나 필요 사항

이 발견될 시 지방자치단체와 상인회에 즉시 안내해 개선을 유도하고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및 시설현대화 사업 등과 연계해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상인과 방문객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건협 전북지부, 5월 사회공헌활동 ‘훈훈’

5월 가정의 달 지역 어르신 건강 챙기기에 건협 전북지부 사회공헌활동이 훈훈한 감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12일 건협 전북지부 임진영 본부장은 선녀머종합사회복지관 임원들과 함께 ‘사랑의 밀반찬 배달 봉사’를 진행했다.

사랑의 밀반찬 봉사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 영양 공급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건협은 봉사 활동을 통해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세심히 살폈다.

다음에 건협 본부장은 어르신들의 일상 어려움을 청취하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이날 함께 나눴다.



<사진=건협 전북지부>

이에 따라 임진영 본부장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랑의 밀반찬’에는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 가득한 밀반찬 세트가 마련됐다.

/김영태 기자

## 국민연금공단-전북대학교 금융전문인력 양성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학교와 금융운용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 협약은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대학교가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금융 인재 육성과 전북지역의 금융생태계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전북대학교 내 국민연금 기금특별과정을 올해 8월까지 개설할 예정이다.

과정에는 기금운용본부 신규 주임운용역과 전북지역 5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교육생으로 참여하고, 강사진은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금운용본부 실·팀장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거점 국립대 육성과 금융 분야 공동 연구 및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서신신협, 건강증진 협약

서신신협(이사장 한병훈)은 지난 11일 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이사장 최정웅)과 조합원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서신신협 조합원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검진 제공, 예방접종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상생 발전 도모, 전담인력배정(서비스매니저 1:1 동행),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우호증진 등이 다.

한병훈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신신협은 올해 4월 말 기준 자산 1705억원, 조합원 수 9443명을 보유하고 있다.

신협 어부바멘토링, 우리동네 어부바사업 등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펼치며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특별금리 제공

### 연 4.11%… 내달 30일까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준원)은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4.11%의 금리를 제공하는 ‘씨드모아 통장’ 우대금리 이벤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벤트는 씨드모아 통장의 매일 잔액을 기준으로 연 2.0%의 기본 금리에 더해 △마케팅 동의 시 0.6% △매일 최종 잔액 중 2백만원 이하 분에 대해 1.51% △2백만원 초과분에 대해 0.51%의 우대금리를 가입일로부터 3개월간 제공한다.

눈에 띄는 점은 우대금리가 특정구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2백만원 이하 구간(1.51%)과 2백만원 초과 구간(0.51%)에 우대금리가 적용돼 매일의 전체 잔액에 대해 빠짐없이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씨드모아 통장은 단기 대기자금, 투자 예정 자금, 비상자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은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품으로 전북은행 입출금 통장을 보유하지 않은 첫 거래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임에도 기본금리 연 2.0%라는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고 이벤트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4.11%의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최근 증권 계좌 등의 투자 상품과 연동해 자금운용을 하거나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요시하는 고객들에게 ‘필수통장’으로 선택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모바일뱅크 ‘속뱅크’ 또는 전북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전교조 “전주 사립고서 기간제 교사 상습 갑질”

## 사적 업무 강요 및 고용 위협... 학교 측 “즉각 분리 및 징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부장 교사의 기간제 교사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고발하며, 전북교육청에 실제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2일 “전주 모 사립고 인성인권부장 A교사가 지난해 3월

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기간제 교사 B씨를 상대로 상습적인 갑질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교사는 불안정한 고용 신분을 악용해 B씨를 압박했다. 주요 피해 사례는 △“새로 공고를 내겠다” 등 고용 위협 및 폭언 △개인 운전면허 갱신, 동호회 투표 등 사적 심부름 강요 △심야 시간대 음주 전화 등이다.

노조는 A교사가 3월에도 다른 기간제 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관리자의 사건 은폐 의혹도 제기

됐다. 노조는 피해자가 교장에게 문제 해결을 호소했으나, 교장이 정교사 자리를 제안하며 침묵을 유도하고 이사회를 내세워 피해를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립고 측은 “사건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사안을 인지한 즉시 가해 교사의 업무를 배제하고 자리를 옮기는 등 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했다”며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학교가 앞장서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지난 2월 가해 교사에게 감봉 2

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교사에게 병가를 부여하고 치료를 돕는 등 학교 차원의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며 “당사자 간의 개인적 합의 결렬로 불거진 갈등이 마치 학교의 은폐 시도로 왜곡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을 향해 △도내 모든 학교 대상 기간제 교원 갑질 실태 전수 조사 △신고자 보호 규정 실질적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실효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

##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사업 선정

습지 생태계 조사 및 자원화 환경 조사 및 가치 확산 사업’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쇠족제비의 서식을 확인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재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발간한 생태관광 자료집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창환 상임이사는 “4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은 고창의 우수한 생태 가치와 재단의 환경 보전 분야의 전문 역량을 공인받은 결과”라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모델이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의 선도적인 모범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전문 자료집 및 홍보물 발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추진한 ‘방장산 자연

/고창=백종규 기자

# 정읍시 ‘전국 유소년 축구 축제’ 성황리 폐막

## 128개 팀 1500여 명 선수들 기량 겨뤘

정읍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정읍체육공원과 태인성황 축구장에서 전국 128개 팀 1500여 명의 축구 꿈나무가 참가한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유소년축구클럽연맹과 정읍시 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참가 팀이 많아 경기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자 동학리고와 농민리고로 나눠 진행했다.

조별 예선과 승자 진출전(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 경기에서 어린 선수들은 그동안 갖고있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관람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치열한 경쟁 끝에 1차 대회 우승팀이 가려졌다.

8세 이하(U-8) 동학리고는 전북현대 U8이, 농민리고는 애플라인드가 우승을 차지했다. 9세 이하(U-9) 동학리고는 전북현대U9, 농민리고는 진주FC가 정상에 올랐다.

10세 이하(U-10) 동학리고는 FC스퀘어, 농민리고는 BEST11RED가 1위를 거머쥐었다.

11세 이하(U-11) 동학리고는 거제에이원, 농민리고는 구미리스펙트FC가 우승컵을 안았다.

최상위 연령인 12세 이하(U-12) 동학리고는 낫소FC, 농민리고는 에스엔텐ฟุตบอล클럽이 각각 우승의 영광을 누렸다.

이어 열린 2차 대회에서도 열띤 승부가 펼쳐졌다. 8세 이하와 9세 이하 연령대는 하이두축구클럽이 두 그룹 모두 우승을 휩쓸었다.

10세 이하 동학리고는 하이두축구클럽, 농민리고는 SIS FC가 정상에 올랐다.



11세 이하 동학리고는 조동식FC, 농민리고는 대성FC가 우승을 차지했다. 12세 이하 동학리고는 정읍로얄FC가, 농민리고는 구미리스펙트FC가 각각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대미를 장식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유소년 선수들에게 소중한 경험과 성장의 발판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 체육 활성화와 지역 스포츠 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성우보육원과 아동복지 협약

실무 중심 전문인력 양성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11일 성우보육원과 아동복지 증진 및 실무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현장실습 및 인턴십 지원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 공동 운영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 개발 등에 협력한다.

세부적으로 성우보육원은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와 아동복지 관련 사례 자료를 제공한다.

전주대 사회복지학과는 아동 사례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슈퍼비전과 연구·교육을 지원하며, 보육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오단이 전주대 사회복지학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의 현장 실습 기회를 넓히고 아동복지 현장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사회복지 현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도문화관광재단, 어린이 위한 공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9월을 시작으로 전북예술회관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공연 3편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공연은 지난 9일 뮤지컬 ‘목 짝은 기린 지피’로, 아프리카 초원을 배경으로 목이 짝이 놀린 지피가 친구를 만나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며, 작품성을 인정받아 2014년 아시테지 코리아 서울어린이연극상 등 다양한 연극에서 수상한 바 있다.

이어 오는 23일에 진행되는 인형극 ‘괴물도감’은 장난꾸러기 ‘오늘이’가 괴물세계에 떨어지며 펼쳐지는 판타지 모험으로, 동양 설화 속 다양한 괴물들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세 번째 공연은 내달 13일에 진행되는 연극 ‘강아지똥’으로,故 권정생 작가의 동화를 원작으로 해 세상에 없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메시지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이타심의 가치를 전하며, 따뜻한 감동을 더한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전북예술회관에 방문해 공연을 즐기며 공감과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연 예매는 나루컬처와 NOL티켓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jbct.or.kr) 문화관광팔력에서 확인하거나 예술회관운영팀(063-230-74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철 기자

# 전북현대 유스 시스템, 최고 등급 취득

## 선수 교육관·장비 등 국제적 수준 증명

전북현대모터스FC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유스 육성 시스템을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FC(아시아축구연맹)은 최근 발표를 통해 KFA(대한축구협회)의 ‘AFC Elite Youth Scheme’ 3-Star 지위를 갱신했으며 전북현대 유스 아카데미 역시 2020년 첫 3-Star 취득에 이어 올

해도 멤버십을 유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재인증은 단순한 성적뿐만 아니라 선수의 교육권 보장, 과학적 훈련 장비, 의료 지원 체계 등 모든 요소가 ‘월드 클래스’ 수준임을 증명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지위다.

AFC Elite Youth Scheme은 아시아 전역의 유스 육성 시스템과 선수 개발 환경, 교육 체계, 운영 인프라 등을 총 20개 분야를 엄격히 심사해 각 국가와 클럽의 육성 역량을 별(Star)로 등급을

부여하는 AFC의 대표적인 유소년 인증 제도다.

등급은 1-Star부터 3-Star까지 나뉘며, 최고 등급인 ‘3-Star’는 아시아에서 가장 완벽한 유스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만 부여된다.

전북현대에는 체계적인 연령별 육성 시스템과 선수 성장 프로세스, 전문 지도 환경, 지속 가능한 유소년 운영 모델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아시아 최고 수준의 아카데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북현대에는 그동안 U8부터 U18까지 이어지는 연령별 시스템 구축과 함께, 프로팀 철학과 연계된 육성 방향을 기반으로 다수의 유망주를 배출해왔다.

또 선수 육성뿐 아니라 인성과 학업, 생활 관리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성장 환경 조성에도 힘써왔다.

전북현대에는 이번 3-Star 등급 재인증에 안주하지 않고, 선수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육성할 수 있는 유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최상의 한우

# 순정축협 순창한우명품관

우리 지역, 우리 한우

다양한 룸과 고객라운지를 비롯하여 360석 규모의 각종 행사가 가능한 연회석이 준비되어 있으며, 정갈하고 신선한 식자재와 최상의 한우로 최고의 맛을 전해 드립니다.

다양한 룸  
6·12·24인실

각종행사 가능한  
총 360석 규모

포장주문  
가능

편안한  
대기공간

엘리베이터  
원비

**순정축협 순창한우명품관**  
063)653-2319

## 익산시, 원광대 축제로 청년정책 홍보 전개

익산시가 원광대학교 축제 현장을 찾아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청년친화도시 익산' 알리기에 나선다.

익산시는 12일부터 14일까지 원광대학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윈스터빌' 기간에 맞춰 청년정책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익산에(愛) 바른주소갖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원광대 학생 등 축제 방문 청년층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찾아가는 전업 상담소'를 운영해 실거주지 미전입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전업 상담과 지원 혜택 안내를 진행한다. 현장에서 전업신고서를 작성한 청년에게는 생활밀착형 물품으로 구성된 '전업청년 웰컴 박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0개 부서가 참여해 학생회관과 생활관, 사법대, 제2의학과 등 교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분야별 맞춤형 정책 홍보에 나선다.

축제 현장에서는 청년 소통 플랫폼인 '청년시청 청년DB'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는 개인별 맞춤형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DB 가입자와 상담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운영해 자연스러운 정책 참여를 유도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학과 연계한 현장 중심 홍보와 청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청년이 머물고 정착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차별 없는 포용 도시 정읍"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정읍시는 12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 시설과 단체, 시민 등 1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주제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지회장 송현)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준비했다. 식전 공연에서는 장애인 시설과 단체가 참여한 오페라 연주와 노래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이어 첫 기념식은 장애인 인권 향상, 장애 극복과 유망 사업, 기념사와 축사 순으로 진행했다. 2부 행사에서는 초청 가수 공연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마술 공연, 행운권 추첨 등 풍성한 진행 순서를 마련해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포용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복지 정책을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군산의료원, 학부모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은 12일 의료원 본관 1층 강당에서 군산명화학교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부모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가정과 지역사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학교 간의 협력을 통해 교육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교육은 군산의료원 간호부의 전문적인 교육 기부로 진행됐으며,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학부모들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응급 상황 시 대처 요령 △심폐소생술(CPR)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훈련용 인체 모형(더미)을 활용해 직접 체험하며 숙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현장감 있는 실습을 통해 자녀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조준필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책임의료 기관으로서 학교 등 지역사회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전문적인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 익산시, 지역 산업 기반 강화 2(題)

## 탄소에 AI 더해 '첨단산업 육성'

익산시가 탄소복합재 재활용과 인공지능(AI) 기반 제조를 접목한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산업통상부 주관 '지역전략산업 기반고도화사업' 공모에 자율형 제조 AI 활용 탄소복합재 순환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국비 65억 원을 비롯해 도비 17억 원과 시비 11억 원 등 총 93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의 핵심은 항공기와 풍력발전기 날개 등에서 발생하는 폐탄소복합재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탄소섬유를 회수하고, 이를 활용한 부품 제조 전 과정에 AI 기반 자율형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시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 수행기관과 협력해 △재활용 탄소섬유 건식·습식 부직포 제조장비 △AI 적층 5축 가공시스템 등 총 8종의 첨단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탄소·섬유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인증, 기술지도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소재 비용 절감은 물론 탄소중립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익산의 전통 섬유 산업이 탄소와 AI를 기반으로 첨단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식물성 대체식품' 개발 본격화

익산시가 지역에서 재배한 국산 콩을 활용해 대체육과 단백질 음료, 식품소재 등 다양한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미래 먹거리 거점 도시로의 도약에 나섰다.

시는 12일 한국식품산업협회 러스터진흥원에서 대체식품 혁신 생태계 조성 추진단의 첫 회의를 열고, 국산 원료를 기반으로 한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협회 러스터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최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고기 대신 콩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든 대체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올해

부터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원료 개발과 실증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우선 단백질 함량이 높아 대체식품 가공에 안성맞춤인 국산 신품종 대두 '대단콩'을 익산 지역 5,950㎡ 부지에 시범 재배한다. 이곳에서 수확한 콩으로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을 활용해 식품 산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가공 기술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산 원료 기반의 대체식품 산업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 안보를 지키고 우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익산시를 대한민국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의 전진기지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 강화

### 비행 예방 협약 체결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군산보호관찰소는 지역 내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비행 예방을 위해 1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지난 2019년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정서 지원, 위기 개입, 학업 및 자립 지원, 각종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이번 재협약을 통해 기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서비스 연계 △비행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협력 등이다.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진호 소장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산보호관찰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임근석 기자

## 익산시, 시민 일상에 문화 더한다

### '토마토 무비데이' 운영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영화 상영 프로그램 '토마토 무비데이'를 이달부터 오는 9월 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음악과 영화가 어우러진 문화 경험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즐거움과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영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3시 익산송림문화의숲 2층 송림소극장에서 진행된다. 상영작은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영화들로 구성됐다.

'사운드 오브 뮤직'과 썸, 맘마미아!, 언더 하이즈, 위대한 쇼맨 등이 순차적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관람료는 1편당 3,000원이며, 5편을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구독권도 함께 운영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익산시>



익산시 관계자는 "토마토 무비데이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착수

## 오는 18일~7월 3일까지 시민 70%에 15만원 지원

군산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92.5%의 높은 지급률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18일부터 2차 지급에 본격 착수한다.

2차 지급은 지난 3월 30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중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1차에서 우선 지급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제외한 하위 70% 시민이 주요 대상이며,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기간 중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선별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되,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가구는 제외된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는 별도 기준과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며, 네이버업·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을 오는 16일부터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2차 신청·지급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첫 주(5월 18~23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에

간 중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이한현 일자리경제과장은 "2차 피해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하위 70% 시민에게 지급하게 되며 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차 지급 기간 중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 정읍시,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접수 시작

## 청년농 무이자 혜택... 오는 22일까지 신청

정읍시는 지역 축산 농가와 청년농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연 1%대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농림수산물발전기금 4차 신청을 받는다.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은 농림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제도다. 축산 분야에서는 사육 시설 현대화, 가공과 유통 기반 확충,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을 통해 농업인과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의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다. 시는 기금 출연 시·군·로서 더욱 유리한 이자율로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조건은 자금 용도와 대상에 따라 나뉜다. 일반 농가는 운영 자금, 가공과 생산 시설 자금, 경영 회생 자금 모두 2년간 연 1%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특히 청년농에게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농은 운영 자금의 경우 1년간, 경영 회생 자금은 3년 거치 기간 동안,

가공·생산 시설 자금은 5년 거치 기간 동안 이자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융자 지원이 지역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안정을 이끌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은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사육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농가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지역 축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군산시,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추진

##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대상 실태 점검

군산시는 오는 18일부터 농지투기 근절과 농지의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농지 6만 9천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 조사를 병행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1단계 기본조사(5월 18일~7월)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고 농지 대장을 정비

한다. 이어 2단계 심층조사(8월~12월)에서는 현장 중심의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심층조사에서는 1단계 기본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의심 농지를 비롯해 △외국의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중 발급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2027년부터 처분업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는 내년 조사 시작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부시장

을 팀장으로 시 및 읍·면·동 단위 조사반을 구성했으며, 5월 중 조사 수행을 지원할 조사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근무조건은 주 5일, 1일 8시간이며, 군산시 생활임금(시급 10,780원)이 적용되고 4대 보험이 적용된다.

방문 조사와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이 활용이 가능한 자를 우대하며, 농업 및 통계 조사 경험자와 지역 거주자도 우대한다.

김상기 농업정책과장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생산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 정읍시,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 '복적' 기적의 놀이터 효과

### 기적의 놀이터 효과

정읍시가 지난 4월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한 자전거 대여소가 한 달여 동안 3571대의 대여 실적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1일간 자전거 대여소 이용 건수는 총 3571대에 달한다. 특히 어린이날이 있던 지난 5월 5일에는 하루 동안에만 566대의 자전거가 대여돼 이전 개장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흥행의 배경에는 지난해 9월 준공된 내장산문화광장 내 '기적의 놀이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급증하면서 자전거 대여소 이용 수

요도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시는 이용자 증가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 이용객이 평일과 비교해 20배 이상 집중되는 만큼 원활한 대표와 대여·반납 절차를 제공할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내장산문화광장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전거 노후화로 일어나는 사고를 막고자 정기적인 정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 여름철 방역 돌입

익산시가 여름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방역에 본격 돌입한다.

익산시는 12일 보건소에서 '위생해충 방역 교육 및 방역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비롯해 29개 읍면동의 방역 담당자·근로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앞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위생해충의 특성에 따른 방제 방법과 올바른 살충제·방역장비 사용법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보건소 방역기동반 2개 반을 편성해 유충 구제 활동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역장비 확충과 집결, 방역약품 구입·배부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보건소 방역기동반은 오는 10월까지 취약지역과 위생해충 주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진행한다. 29개 읍·면·동 방역반도 지역 밀착형 방제를 병행해 방역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도입한 '모기 발생 감시 장치' 운영을 한층 강화한다. 종합운동장과 모현공원 등 9개소에 설치된 장치를 통해 수집한 모기 개체 수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해충 밀도가 높은 지역에 방역 자원을 즉시 투입하는 데이터 기반 선제 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고창군, 고령사회 맞춤형 체육 복지 실현

## ‘어르신 스포츠강좌’ 공모 선정... 라이프UP 실버체육교실 운영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3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창군은 ‘고창군 라이프UP 실버체육교실’ 사업에 2028년까지 3년간 총 6억원(국비 3억, 지방비 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체계적

인 스포츠 환경을 만든다. 올해는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6개 종목(요가, 라인댄스, 생활체조, 탁구, 파크골프, 민속경기 등)이 진행된다.

전문 생활체육지도자 6명이 관내 공공체육시설 6개소에 배치되어 주 5회 상시 강습을 진행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다.

고창군은 기금 보조금 교부 일정에 맞춰 강사 채용과 참가자 모집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돌입한다. 사전·사후 체력 인증을 통해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정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 주관단체인 오철환 고창군체육회장은 “이번 공모 사업을 발판 삼아 지역 내 스포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기찬 체육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는 “별빛 건강체조처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창군만의 독자적인 실버 스포츠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새만금신항 개항 대응 ‘총력’

## 정부정책 방향 및 항만 연계 발전방안 토론

김제시가 새만금신항의 개항을 앞두고 ‘김제시 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를 개최하며 개항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을 비롯한 항만, 해운·물류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새만금신항의 개항에 대비해 지자체 역할에 대해 재정립하는 한편, 변경 예정인 정부정책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제시 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위촉된 제3기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와 함께 새만금신항 2선석 개항에 대비해 항만 경쟁력 강화와 신항과 연계한 김제시 발전방향, 국가관리무역항에 대한 지자체 기여 방안, 새만금 크루즈·물류 산업 등을 주제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참석한 위원들은 제21대 대선에서 내놓은 새 정부의 항만 분야 정책 동향과 새만금과 신항만 관련 지역 공약을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새만금신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김제시 연계전략에



12일 개최된 ‘김제시 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

<사진=김제시>

대해 열린 토론회와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2021년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항만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근 항만과의 상생 발전방안 모색과 새만금신항 특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로 각종 용역과 전문가 세미나를 선제적으로 완료,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 정부 항만정책에 일부 반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낸 바 있다.

올해 역시 항만 관련 학술대회(심포지엄)와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크루즈 부두 개항과 새만금신항 크루즈 기항지 선정에 착안해 크루

즈 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관계기관 및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해양수산부의 항만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한 새만금신항의 경쟁력 강화와 신항만과 연계한 김제시 미래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런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새만금신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의 미래 신산업을 견인할 핵심 인프라”라면서 “새롭게 출범한 제3기 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가 새만금신항의 성공과 김제시 발전에 소중한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소방서, 재난·화재 대응 협력

## 현장 장비 동원 및 수습 복구 등 업무협약 체결

부안군은 12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안소방서와 재난 및 화재 발생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과 최길웅 부안소방서장을 비롯해 각 기관의 주요 부서장과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이나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굴착기, 지게

차 등과 같은 중장비와 현장에서 긴급히 필요한 장비의 동원 요청과 응원에 관한 협력 사항을 골자로 하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재난·화재 발생시 군의 중장비를 활용해 재난·화재 현장 수습·복구에 협력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6월 8일 행안 농공단지 내 발생한 화재 상황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군에서 소방서 현장대응단의 지원 요청을 수용해 굴착기와 트럭, 모래 등을 화재 현장에 지원해 화재 진압에 기여한 바 있다.

군은 이번 협약에 따른 협력체가 공동시 현장의 소방력 장기 가동으로 인

한 소방공무원 피로 누적 해결과 신속한 수습·복구로 소방력의 타 현장 긴급 출동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히 분배해 타 사고 현장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부안 해돋이마루 지방정원에서 열린 제13회 부안마실축제에서 소방서, 경찰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군 안전관리요원 및 민간단체 협력체계 가동을 통해 1건의 인명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으며 군민이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부안=온봉기 기자

# 김제 지평선시네마 ‘1,000원’으로 영화 관람

## 최신 시설에서 개봉작 감상... 오늘부터 시행

김제시는 오늘부터 지평선시네마에서 1,000원으로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2026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으로, 김제 지평선시네마가 우수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작년에 이어 2026년에도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원 내용에 따르면 관람객은 전체 관람료 중 6,000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본인 부담금 1,000원만 결제하면 일반 상영관 못지않은 최신 시설에서 개봉작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 발권뿐만 아니라 지평선시네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매 시에도 동일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예매는 1인당 2매까지 가능하며, 선착순 지원 방식으로 할당된 예산이 소

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문화비 부담을 덜고 지역 영화관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김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풍요로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문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화 상영 시간표 확인 및 온라인 예매는 지평선시네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바다가는 달’ 부안 청자 도예 체험 개최**  
16일 퍼포먼스 등 진행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북 서해안의 푸른 바다와 수억 년의 시간이 빛을 지질 유산, 그리고 천년의 예술 청자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열린다.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한국관광공사의 해양관광 활성화 캠페인 ‘바다가는 달’과 연계해, 오는 16일 변산반도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지질이 선물한 진흙, 부안 청자 도예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협력해 추진되며, 부안의 지질학적 가치가 어떻게 부안청자라는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꽃피웠는지를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문 도예가의 지도 아래 관광객들이 직접 물레를 돌려 청자를 빚어보는 ‘부안 청자 도예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숙련된 도예가가 선보이는 청자 공예 퍼포먼스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체험과 더불어 부안의 비옥한 땅과 바다가 키워낸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마련된다. 지질공원의 풍요로운 자연환경이 선물한 부안만의 건강한 맛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오감을 만족시키는 휴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변산반도를 찾는 많은 분이 파도파도 끝없이 나오는 부안의 색다른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부안군>

# 김제시 체육진흥과, 복숭아 농가 일손돕기

## 영농철 맞아 봉사활동 전개

김제시는 체육진흥과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12일 봉남면 대송리에 있는 복숭아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번기를 맞아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은 현장을 찾아 직접 작업에 참여하며 농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 마실영화관, 관람료 할인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문화재단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256만8천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63% 증가한 규모이다.

단돈 1천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이번 지원사업은 오늘부터 시작돼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재단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약 5,500명의 군민이 영화 관람을 통한 문화향유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화 예매는 마실영화관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예매는 1인당 2매까지 가능하다. 현장 예매와 발권은 별도 매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부안=온봉기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교통·안전 공약 발표

심덕섭 더불어민주당 고창군수 후보는 12일 ‘열린 교통, 안전한 고창’ 공약을 발표하며 “고창을 사통팔달과 재난안전의 모범 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분야 최대 사업은 서해안철도 고창역 신설이다. 새만금-목포 110km 구간에 국비 4조 7,919억원을 투입되며, 개통시 고창에서 서울까지 KTX로 90분이면 닿는다.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연결고리인 노을대교는 사업비가 4,254억 원으로 증액 확정됐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도로망도 대폭 확충한다. 국도 22호선 흥덕-부안 구간 4차선 확대에 1,944억원, 선형 개량에 196억원을 투자한다. 고창읍 우회도로신설, 국도 77호선 위험구간 개선, 국도 15호선 확장, 고창-담양 고속도로 연결 등 총 5건의 제

4차 건설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생활 교통도 바꾼다. DRT전면 도입과 1,000원 행복택시확대로 면 단위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선 지중화와 스마트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

안전·재해 예방에는 총 2,505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상하·외촌·대동·고창·대산 등 상습 침수지역 풍수해 종합 정비에 1,512억 원, 하천·배수·저수지 정비에 993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공간 안전망을 구축한다. 드론 연계 재난안전 통합상황실과 스마트 횡단보도를 전면 설치해 ‘골든타임 1초’ 체계를 구축한다.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는 “실력이 검증된 젊고 유능한 경제일꾼 심덕섭이 군민과 함께 고창의 찬란한 희망과 발전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현명한 선택을 강력히 호소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직원 친절교육 실시... 현장 소통 역량 강화

고창군이 지난 11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군청과 읍면 민원업무 담당자 등 소속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민원업무 담당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세는 물론 단순한 민원처리를 넘어 민원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현장 소통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민원인의 마음을 여는 관계의 기술을 주제로 민원인의 감정과 심리를 이해하는 4단계 응대 전략, 신뢰감을 주는 언어 사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응대 기법을 중점으로 다뤘다.

고창군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힘입어 군은 올해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원인 만족도를 높여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민원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법을 익혀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대한적십자봉사회 부안군협 사랑의 집수리 봉사 진행

대한적십자봉사회 부안군협의회(회장 최민자) 및 주산면 적십자봉사회(회장 김정례)는 지난 11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산면 소재 주거 취약계층을 방문해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했다.

이날 현장에 참여한 20여명의 적십자봉사회원들은 집 안팎의 목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대청소를 시작으로 해충 방지를 위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며,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대한적십자봉사회 부안군협의회 장 애인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조(대표 부안장식)는 노후화가 심한 방과 주택의 벽지와 장판을 무료로 교체하는 시공 작업을 통해 낡은 주거 공간을 쾌적한 보금자리로 탈바꿈 시켰다.

김정례 주산면 적십자봉사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서 재난 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나눔성 주산면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꾸준히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봉사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김제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가정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1일,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요촌동 치매안심마을 치매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치매환자의 낙상사고 예방과 일상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됐으며 치매환자 가정을 사전 방문해 주거환경과 안전 취약 여부를 확인 후, 지원이 필요한 5가구를 선정해 진행됐다.

선정된 치매 환자 가정에는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소상공인봉사단과 함께 가정 내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매트 및 미끄럼방지 양말을 제공했다. 특히 욕실과 현관 입구 등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신봉동, 검산동, 성덕면 치매안심마을에도 안전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은 “바쁜 일에도 봉사활동에 함께해주신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치매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유이수 완주군의원, 이해충돌 의혹 “법적 대응”

### “배우자 단순 직원·법 적용 안돼” “당선 전 이미 위탁 결정된 사안”

최근 특정 언론이 제기한 완주군의원 유이수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12일 유이수 의원이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 모두 왜곡된 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우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요건 자체가 해당 사안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예산 심의 등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가 관련될 경우 신고 및 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유 의원 측은 “별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려면 가족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대표자·관리자이거나, 자문·대리 관계에 있거나, 자본 또는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유이수 군의원

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 배우자는 돌봄센터 운영 수탁기관인 ‘소꿈사사회적협동조합(이하 소꿈사)’의 대표자나 임원, 관리자가 아닌 단순 직원 신분”이라며 “법률상 사적이해관계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역시 유 의원 당선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소꿈사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제9대 완주군의회의원 당선 이전 이미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배우자 역시 2019년 직영 체제 당시부터 센터장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마치 의원 당선 이후 배우자가 특별히 취업을 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또 “기사에 포함된 익명 관계자 발언과 구조적 카르텔 등의 표현은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과장된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 보도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언론의 충분한 사실 확인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구조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의혹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측면이 크다”며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 다자녀 패밀리카 지원 2차 모집 시작

### 3자녀 이상 양육 가구 대상 구입비 최대 500만원 지원

완주군이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용 차량(패밀리카)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 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추진하며,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27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2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18세 이하(2007년 5월 12일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다.

선정된 가구에는 6~11인승 가족용 차량 구입비의 10%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세부 지원 조건으로는 공고일 현재 3명의 자녀와 신청인이 주민

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차량은 2026년에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출고를 완료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 신규로 최초 등록된 국산 차량이어야 한다.

기준에 6~11인승 차량을 보유한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났다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구당 보유 차량은 2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미정 인구정책과장은 “3자녀 이상 가구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 지원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완주군의 정주 여건을 위해 다양한 인구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이필준·최승후 합동 전시회·유화 만남 ‘후화산묵전’

남원시는 오늘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예가람 문화공간 1층 전시실에서 이필준 시인과 최승후 화백의 합동 전시전 ‘厚畫山墨展(후화산묵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이필준 시인의 선비 정신이 깃든 서예 작품과 최승후 화백 특유의 화풍으로 자연과 조형미를 담아낸 유화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남원 출신인 이필준 시인은 계간 ‘연인’ 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한 문인이자 서예가다. 그는 시집 ‘산비탈 노을에서 서서’ 출간과 서예 개인전 ‘花意竹情(화의죽정)’ 개최 등 꾸준한 창작 활동을 통해 선비의 풍류를 예술로 승화시켜 왔다는 평을 얻고 있다.

함께 전시에 나서는 최승후 화백은 조선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했으며, 5회 개인전과 ‘한국청년수상작가전’, ‘보절-시간의 기록’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그는 예리한 통찰력과 고유의 조형미를 화폭에 담아내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온 예술가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동양적인 서예와 서양적인 유화가 만나 이색적이면서도 품격 있는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 순창군-전북도, 민관 합동 현장 안전점검

### 김중훈 부지사, 청소년시설 점검 “부모 마음으로 위험요소 살펴야”

순창군은 지난 11일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순창군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하여 민관 합동 현장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집중안전점검의 하나로, 도 지휘부가 직접 현장을 챙김으로써 안전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특히 안전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 숨은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중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조광희 순창 부군수, 그리고 건축·소방·전기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점검단은 먼저 시설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옥상에 이르기까지 건물 전반을 면밀히 살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물 구조부 균열 및 손상 여부 △소방시설 작동 상태 및 대피 통로 확보 △전기 배선 노후화 및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



<사진=순창군>

옥상 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의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에서 점검을 진두지휘한 김중훈 부지사는 “청소년수련관은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부모의 마음으로 아주 작은 위험 요소라도 끝까지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을 지시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신속히 재원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조광희 순창 부군수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단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오는 6월까지 관내 주요 공공시설 및 취약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며,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은 ‘집중안전점검시스템’을 통해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 남원시, 유상철 국토부 과장 44대 명예시민 선정

### 지적행정-국비 확보 공로 인정 연속적지도사업 기반 마련 기여

남원시는 지역 발전과 지적행정 진화에 기여한 유상철 국토교통부 과장을 제44대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12일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명예시민증은 2005년 제정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43명이 선정돼 남원시와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유상철 과장은 국토교통부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핵심 실무자로 활동하며 남원시의 지적행정 발전과 국가에 산 확보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연속적지도 정비사업 전국 시범 지자체 선정과 국가예산 3억 원 확보를 지원해 남원시가 고정밀 연속적 지도 구축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

또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0억 원 규모의 지적재조사 사업비 확보를 지원해 전국 2위 규모의 사업 추진에 기여했으며, 전북 최초 구(舊)도지대장 한글화 및 디지털 구축사업



<사진=남원시>

국비 지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지원 등을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에도 이바지 했다.

이울러 남원시가 2023년도와 2025년도 두 차례 지적 및 국토교통업무 발전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시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초청될 수 있으며, 시정 참여 기회와 함께 시민에 준하는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받게 된다.

유상철 과장은 “앞으로도 남원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 남원시, 아동노동자 대응 세무·안전교육 진행

남원시는 지난 11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아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남원시 아동노동자 세무·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교육은 아동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세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교육 현장에는 한국교통공단 소속 강사와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교육 이수자에게는 ‘취약노동자 일터개선사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수자가 △헬멧, 장갑 등 안전물품 구입비 △유류비 △운송수단 정비 및 수리비 등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당일 교육 참석자 전원에게 야간작업 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야광조끼’를 배부했다.

강탁원 기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아동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 순창장류박물관 ‘병오창의’ 道 연합전시 선정

### 전북도 박물관미술관 연합 공모 병오창의 120주년 기념 특별전

순창장류박물관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사)전북특별자치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미술관 연합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연합전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와 역사 등 지역 자원을 주제로 도내 박물관·미술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창장류박물관은 오는 7월

부터 ‘병오창의(태인의병)’를 주제로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병오창의 2주갑(1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정음 태인면 무성서원에서 최익현과 임병찬의 주도로 시작된 의병 활동을 재조명한다. 의병들은 내장사와 구암사를 거쳐 순창 일대에서 항일 의지를 이어갔으며, 이번 전시는 그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된다.

전시에서는 무성서원 현판, 둔헌유고, 순화아문 현판 등 의병 활동과 관련

된 다양한 유물과 기록물을 선보여 당시의 시대상과 의병들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순창장류박물관 관계자는 “전북자치도 박물관미술관 연합전시를 순창에서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군민과 관람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박물관이 보다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순창군 소프트테니스팀, 전국대회서 ‘맹활약’

### 동아일보기 대회 男단체전 3위 女하야시다 단식·혼합복식 2관왕

순창군 직장운동경기부 소프트테니스팀이 제104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대회에서 남자팀(홍정현 감독)은 단체전 3위에 오르며 뛰어난 팀워크와 저력을 입증했다.

여자팀(김옥임 감독)에서는 하야시다 리코 선수가 개인 단식 부문 정상

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하야시다 리코 선수는 혼합복식 종목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에 오르는 맹활약을 펼쳤다. 또 진인대 선수 역시 같은 종목에서 준우승을 기록했다.

군 관계자는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소프트테니스팀이 전국 무대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시설관리공단, 이전 기념 용진읍 환경정비

### 이전 계기 지역밀착 사회공헌활동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실천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11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용진읍내 국도 17호선 도로변 및 용진중학교 일원에서 ‘함께하는 클린 용진’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최근 공단 청사가 용진읍으로 신규 이전함에 따라 지역사회

와의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공단 임직원들은 용진을 생활 쓰레기 및 불법투기 폐기물을 수거하고, 잡초 제거와 주변 미관 정비 등 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희수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 농특산물 축제 성료...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 지역 농특산물·가공품 할인 판매 춘향제 연계 참여형 축제 ‘홍행’

남원시는 제96회 춘향제 기간인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월궁광장 일원에서 개최한 ‘2026 남원시 농특산물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단순 판매 행사

를 넘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이 어우러진 참여형 축제로 기획되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 내 마련된 농특산물 판매 부스와 컨테이너 부스에서는 지역 농가와 업체가 직접 생산한 고품질의 농특산물 및 가공품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보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 공연, 여성농업인 재능나눔 등 풍성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이벤트가 더해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축제 기간 동안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은 물론,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 무주군, 석가탄신일 기념 봉축 연등탑 점등

무주군은 12일 군청 앞 분수 광장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한 '봉축 연등탑 점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 발전과 군민들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창환 무주군수 권한대행과 원통사 진일스님(봉축위원장)을 비롯한 관내 주요 사찰 주지 스님, 신도,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식전 행사로 진행된 '연꽃 무용' 관람을 시작으로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점등식' 등에 함께 했으며, "불, 법, 승" 구호에 맞춰 점등된 대형 연등탑의 웅장함에 탄성을 쏟아냈다.

올해 무주군 봉축 연등탑의 높이는 9m, 둘레 24m 규모로 1,100개의 연등이 달렸으며 6월 12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노창환 무주군수 권한대행은 "오늘 우리가 밝힌 이 등불은 단순한 빛을 넘어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화합의 상징"이라며, "전 생으로 인한 안보 불안과 경기침체, 이상 기후로 인한 병해 등으로 어려움에 부딪친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 임실군, 맑은 물 공급 수도시설 위생관리 점검 실시

임실군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수돗물 유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상기후로 인한 물 위기가 속화 상황을 대비하고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지난 4월 말 관내 정수장 2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정수처리공정별 유충 모니터링, 방충망 및 이충문 상태 점검, 유충 차단 시설인 포충기, 에어커튼 등 정상 작동 여부, 정수처리시설 위생 관리 상태 등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전 부서 참여 솜품 콘테스트 개최

진안군이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공식사회 내부의 홍보 분위기를 확산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지역 홍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군청 내 부서를 대상으로 솜품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각 부서가 직접 진안의 관광, 문화, 축제, 먹거리, 정책 등을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에는 총 31개 영상이 접수됐으며, 군은 내부 심사를 통해 1차로 15개 작품을 선별했다. 선정된 영상들은 현재 진안군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빠방TV에 게시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다.

군은 앞으로 유튜브 조회수와 관내 행정망 투표 결과를 종합 반영해 최종 우수작 3편을 선정하고,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독려하고, 참신한 콘텐츠 제작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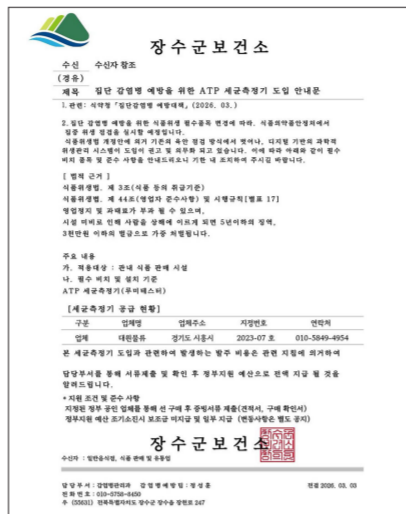
## 장수군, 사칭 공문서 사기 주의 당부

### 장수지역 식품업체 대상 보건소 사칭 공문서 보내 세균측정기 구매 강요

최근 장수지역 식품업체에 장수군보건소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보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장수군은 이 같은 범행이 실제 피해로까지 이어지자 지역 내 식품업체들을 상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이번 장수군보건소 사칭 건은 식품위생법을 빌미로 ATP 세균측정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속이는 게 주된 수법이다. 이에 속아 넘어갈 경우 특정 업체를 통한 장비를 구입할 것을 지시하고 입금을 요구해 왔다.

문제의 공문은 장수군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장수군보건소라는 가짜 조직으로 군 공무원을 사칭해 담당기



위조 공문서

<사진=장수군>

관의 직인, 연락처 등을 기재한 위조 문서로 지역 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발송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장비 구입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시설 미비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되면...가중 처벌됩니다'고 협박하게

나 추후 환급을 약속하며 금전 입금을 유도하기도 했다.

현재 범행은 일반음식점과 식품판매 및 유통업자까지 범행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업체에서는 실제로 금전 피해를 입어 경찰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수군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입금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의심 사례 발생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우 장수군수 권한대행은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 폭염으로부터 주민 안전 지킨다

### 폭염 대비 특별 전담팀 구성 대상별 맞춤형 종합대책 추진 무더위쉼터 127곳 점검 예정

올여름도 이상 기후로 인한 평균 기온 상승과 폭염일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무주군은 지난 1일부터 '폭염 대비 특별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담팀은 폭염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전담팀 총괄 상황반과 건강관리 지원반, 시설 관리반에서는 대상별 맞춤형 종합대책에 따른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 강화, △취약계층 대상 돌봄 및 폭염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한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마을 이장, 지역 자율방재단 등을 재난 도우미로 지정해 폭염 정보를 공유하고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진행한다.

주민들이 한낮의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마을회관과 행정복지센터 등의 공공시설 170곳을 무더위쉼터



로 지정·운영하며 오는 22일까지는 무더위쉼터 127곳에 설치된 냉방기 252대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재난방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지역 자율방재단, 냉방기기 전문가 등이 함께 시설을 방문해 냉방기기 필터 청소와 냉매제 충전 상태, 정상 작동, 무더위쉼터 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살핀다.

무더위쉼터는 야간·휴일에도 탄력적으로 개방되며 비상시에는 응급조치도 가능하도록 구급품을 갖춰 놓은 상태

다. 무주군은 버스정류장과 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고정형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45곳도 설치해 운영 중이며, 올해는 무주읍과 칠전면 2곳에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무주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폭염 취약계층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양심양산대여소'도 10곳을 설치·운영한다.

/무주=최희호 기자

## 임실N장미축제, 고향사랑기부 빅 이벤트

### 장미축제 첫 개최 기념 기부 답례품 특별 추가혜택 제공

임실군이 처음 개최하는 '2026 임실N장미축제'와 연계한 고향사랑기부제 빅 이벤트를 마련, 관광객과 기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군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임실N장미축제' 기간동안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에서 진행되며, 현장 기부자들에게 세액공제와 20% 할인된 가격의 치즈 답례품에 특별 추가혜택까지 제공한다.

축제 기간중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함께, 1만6000원 상당의 '임실치즈피자(L)' 환관과 장미꽃 선물 세트를 특별 증정한다.

특히 양공꿈나무육성지원사업에 20만원 이상 지정기부시에는 피자과 장미꽃선물, 2만원 상당 주유권까지 추가 제공,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더해 1석 5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축제현장에서 10만원 기부 시에는 세

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 6천원, 피자 1만6000원 등 총 15만2000원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만원 지정 기부 참여시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피자, 주유권등을 포함해 약 25만2000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심민 군수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임실N장미축제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시면 기존에 받으셨던 혜택에 더해 맛있는 임실치즈피자에 장미꽃도 드리고, 주유권까지 받으실 수 있는 풍성한 혜택까지 함께 누리실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 축제 현장 민관 합동 안전 점검

장수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최소 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수군 전라품목인 사과, 오이, 토마토, 포도, 상추, 수박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일정 부분을 지원해 농가의 소

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의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 차액의 90% 이내를 지원하는 '전략품목 차액지원' △쌀값 하락 시 공공비축미곡 매입가에서 농협 자체수매가격을 공제한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기타품목(벼) 차액지원' △출하수수료와 포장재비를 지원하는 '계통출하 유통비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략품목 차액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생산유통통합조직과 출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장수군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유통통합조직을 통해 계통출하를 이행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면적은 노지재배의 경우 1,000㎡ 이상 최대 10,000㎡ 이하이며, 시설재배는 3,300㎡ 이내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관람료 6천원 할인

### 팝콘 할인행사 진행

임실군은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작은별영화관에서 단돈 1천 원에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2026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에 임실군이 참여하여 1천7백5십8만6천원을 배정받아 임실 군민들에게 최대 6,000원의 영화 관람료 할인을 제공한다.

임실 작은별영화관의 기존 관람료는 1매당 7,000원인데, 본 사업을 통해 6,000원을 할인받게 되면 관객은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운영하여 1인당 최대 2매까지 할인 예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군민들의 영화관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영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팝콘 할인행사도 오는 31일까지 함께 진행하여, 군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영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할인 혜택은 5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예매 결제일 기준으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사업도 함께 종료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임실 작은별영화관은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영화관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며, 영화관 입장권 할인지원으로 영화를 즐기고, 이를 통해 영화관도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 영화 관람료 할인 이벤트 실시

장수군은 장수한누리영화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1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영화 관람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는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영화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면 관람객은 1인당 최대 6,000원의 관람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일반 영화의 경우 기존 관람료 7,000원 중 6,000원이 지원되어 관객은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할인 적용시에도 관람객은 최소 1,000원 이상은 반드시 결제해야 하며, 1,000원 미만 결제는 불가능

하다. 또한 3D 영화는 기존 9,000원에서 6,000원이 할인되어 관객 부담금은 3,000원이면 관람이 가능해 군민들의 문화생활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현장 예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매에도 동일한 할인 혜택이 적용돼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다만 온라인 예매는 ID당 최대 2매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단체관람 시에도 할인 혜택이 적용돼 가족, 친구, 동호회 등 다양한 단위의 문화활동 참여가 가능하나 장소 대관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장수한누리영화관은 장수읍 한누리로 393 가라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중무휴로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정부합동평가 적극 대응체계 마련

### 경량·정성지표·노력도·가점 체계적 관리 나서

임실군은 2026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합동평가는 국정 주요 시책과 위임사무, 국가 핵심 정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과 정책 실행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군은 지난 8일 군청 회의실에서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면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별 지표별 대응 전략과 우수사례 발굴 요령 및 추진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컨설팅은 정부합동평가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종합평가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성지표에 대한 평가 향상을 위해 우수사례 작성 방법과 평가 주요 핵심 사항, 지표별 핵심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정성지표는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 주민 체감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체계적인 논리 구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꼽히고 있다.

군은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오는 12월까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는 물론 노력도와 가점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정부합동평가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별 실적 점검과 개별 사례 발굴, 사전 컨설팅 및 보완 절차를 지속 추진해 평가 대응의 완성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 도입

### 고강도 수확물 운반 작업 자동화

진안군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장의 혁신을 위해 '2026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 시범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해 토마토 연동하우스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을 설치하고, 스마트 기술 기반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작업자 추종형 운반 로봇은 농작업자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따라다니며 수확물이나 자재를 운반하는 장비로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화되는 농촌 현실에서 반복적이고 체력 소모가 큰 운반 작업을 대체함으로써 1일 작업량은 2.5배 증가, 작업 필요 인력은 50%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노금선 소장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작물 수확물 운반작업을 로봇이 대신하게 되어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더 많은 농가에 스마트 농기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 경천면 새마을부녀회, 국도 자투리땅에 꽃밭 조성**

완주군 경천면 새마을부녀회가 국도 17호선 인근의 방치된 자투리땅을 형형색색의 꽃밭으로 가꾸며 지역 사회와 도로 이용자들에게 향기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천면 새마을부녀회(연합회장 이명례) 회원 11여 명은 최근 용복터널 인근 자투리땅에 모여 풍성한 꽃밭을 조성했다.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땅에 가득했던 잡초를 말끔히 제거하고, 메리골드와 사루비아, 맨드라미 등 봄꽃 3,000본을 정성껏 심었다.

해당 구역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국도 17호선과 접해 있어 관리가 소홀할 경우 잡초가 무성해져 미관을 해치기 쉬운 곳이다. 부녀회는 해마다 이곳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지나가는 행인과 운전자들에게 산뜻한 꽃내음과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이승희 경천면장은 “아름다운 꽃밭 조성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린 부녀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경천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병근 기자



**부안 병철이네농장, 장학금 100만원 기탁**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상서면 고잔리에 위치한 병철이네농장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병철이네농장은 서리태공, 고추, 마늘, 양파 등 다양한 토종 농산물을 직접 재배해 소포장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 농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정직한 농산물 생산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꾸준한 지역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김병철 병철이네농장 대표는 “농업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소비자들의 관심과 믿음이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병철이네농장을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지역사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주)유니쉐프, 익산에 식료품 20종 기탁**

**행복나눔마켓·뱅크에 약 1천만원 상당 기부**



익산시는 12일 '주식회사 유니쉐프(대표 최윤혁·오경열)'가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에 야채볶음밥 등 식료품 20종(1,1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주식회사 유니쉐프가 익산에 새로운 물류 거점을 구축한 것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최윤혁 대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익산시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된 만큼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경열 대표는 “앞으로도 익산시의 일원으로서 지역 상생과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에 새로운 투자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해 주신 주식회사 유니쉐프에 감사드리

다”며 “따뜻한 마음이 지역 내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주식회사 유니쉐프는 전국 외식 프랜차이즈 ‘황금코다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안성시 푸드뱅크 등에 지속적으로 식품을 후원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익산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경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임실 덕치면지사협, 사랑의 빵 나눔 사업 추진**

임실군 덕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일 협의체 위원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정성을 다해 직접 빵을 만들고, 카네이션을 함께 준비해 60여 가정을 직접 방문·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이웃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상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을 전했다.

덕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평소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군산경찰서-(주)OCI, 치매 노인에 ‘배회감지기’ 보급**

**사회적 약자 실종 예방**

군산경찰서(서장 임정빈)는 12일, 군산경찰서 2층 서장 집무실에서 (주)OCI 군산공장, 군산중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회적 약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치매 노인 및 발달장애인 등 실종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종 사고 발생시 신속한 발견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OCI 군산공장은 약 500만 원 상당의 배회감지기 18대와 통신료를 기탁했으며, 군산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는 실종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자 18명을 직접 발굴하여 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기탁된 배회감지기는 GPS 위치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상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정빈 군산경찰서장은 “지역 기



업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한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사회복지관, 홀몸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

정읍사회복지관(관장 정광일)은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지역 내 홀몸 어르신 30명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는 ‘방방곡곡 행복밥상’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KBS강태원복지재단의 2026년 어르신 외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평소 외식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정서적 교류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정읍사회복지관은 총 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성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어르신들에게 함박스테이크를 대접했다.

정광일 관장은 “어버이날을 홀로 보내시는 어르신들께 특별한 시간과 추억을 전해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연 기자



**장수지역자활센터, ‘한끼국수’ 나눔 행사**

장수군은 장수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한끼국수’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국수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정서적 교류와 안부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활기업 출범 1년 차를 맞은 ‘한끼국수’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정성스럽게 준비된 국수를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한끼국수 관계자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따뜻한 점을 나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자활기업이 지역사회 안에서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과 공동체 돌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장수=최진수 기자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체조교실, 전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서 수상**

남원시가 직영하는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은 지난 7일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체조 부문에서 생활체조교실 참여 어르신들이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생활체조교실 어르신 16명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이번 수상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평일 오전마다 1시간씩 꾸준히 연습에 매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남원시체육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 중인 ‘생활체조교실’은 전문적인 경험이 없는 어르신들도 음악에 맞춰 즐겁게 동작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대회 당일 참가자들은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활기 넘치는 무대를 선사해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경험은 단순한 일상적인 운동이 대회 참여와 수상이라는 성취로 이어지며,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남원=김종원 기자

**실내 미세먼지 줄이는 팁**

실내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세먼지 제거



01

하루3번, 10분 환기 하기  
환기를 하지않는것은 좋지 않다



02

실내습도 50% 유지 매우 중요 합니다  
젖은빨래, 수건으로 습도 조절



03

주방조리 시 미세먼지 발생 합니다.  
조리후 환기를 꼭 해 주세요



〈一事一言〉



민주당에 묻는다, 전북의 몰표에 무엇으로 답했나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덧발’이라는 굴레 벗어던질 시간

지난 11일 발표된 전북지사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가볍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무소속 김관영 지사가 43.2%로 선두를 달리고,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39.7%로 턱밑까지 추격하는 이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조점전’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북의 고질적인 정치 구조에 대한 유권자들의 깊은 고민이 투영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그간 전북 정치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해묵은 공식에 갇혀 있었다. 중앙당이 누구를 내러보내든, 어떤 방식의 공천을 하든 도민들은 맹목적인 애정을 보였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가. 무조건적인 지지가 돌아온 자리에 남은 것은 ‘전북 몰표’라는 서글픈 수식어와 낙후된 지역 경제뿐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전북을 향해 ‘덧발’이라 부르며 충성을 요구하지만, 정작 전북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어떠한가.

중앙당의 소위 ‘줄세우기’ 정치는 지역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고질병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 후보를 향해 “영구 복당 불가”라는 엄포를 놓으며 도민의 선택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도민의 의사보다 당의 규율과 권위를 우위에 두는 고압적인 덧발 정치의 전형이다. 특정 정당에 몰표를 던지는 것이 당연시될 때, 정당은 지역을 위해 일하기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더 몰두하게 된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없듯, 경쟁 없는 정치는 지역의 쇠락을 가속화할 뿐이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역대 수많은 선거에서 전북이 보여준 압도적인 지지에 대해 민주당은 무엇으로 답했는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전북의 목소리는 여전히 변두리에 머물러 있고, 대형 국책 사업이나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전북은 늘 후순위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어차피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박히는 순간, 전북은 정치적 협상력을 잃은 ‘잡은 고기’ 신세가 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제는 ‘민주당만 되면 다 된다’는 고정관념의 벽을 깨야 할 때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후보가 1위를 지키고 있는 현상은, 정당이라는 허울보다 ‘누가 전북의 먹거리를 가져올 실력이 있는가’를 먼저 보겠다는 유권자들의 각성이다.

중앙당의 위협적인 수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지역의 이익과 인물의 역량을 잣대로 삼는 실용주의적 선택이 전북 정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선거는 정당의 세를 과시하는 축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엄중한 계약이다.

중앙당의 줄세우기에 순응하며 맹목적인 투표를 반복한다면, 전북의 ‘정치적 허부 조직화’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 일색의 정치 지형에 균열을 내고 건강한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전북이 중앙 정치의 변방에서 벗어나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첫걸음이다.

민심은 더 이상 정당의 깃발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번 선거가 덧발 정치의 종언을 고하고, 오직 전북의 자존심과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시대의 개막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6월, 전북 도민의 선택은 정당의 오만을 꾸짖고 인물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사설

‘민주당 공천=당선’ 공식, 이제는 도민이 깨야 한다

11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전북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무소속 김관영 지사가 43.2%로 앞서고,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39.7%로 맹추격 중인 이번 양상은 단순한 지지율 수치를 넘어 전북 민심의 근본적인 변화를 감지하게 한다. 무엇보다 그간 전북을 지배해온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고착화된 공식에 도민들이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냉정히 자문해봐야 한다. 수십 년간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압도적인 몰표를 몰아준 결과, 전북에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덧발’이라는 달콤한 수식어 뒤에 숨은 것은 ‘전북 몰표’와 ‘정치적 변방’으로의 전락이었다. 중앙당은 전북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축 기지’ 정도로 여기며, 지역의 자율성보다는 중앙의 정교적 이익에 따른 ‘줄세우기 정치’에 몰두해 왔다. 경쟁 없는 시장이 도태되듯, 견제 없는 정치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무소속 후보를 향해 “영구 복당 불가”라는 고압적인 자세로 도민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권보다 당의 기득권을 우선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다. 전북은 더 이상 특정 정당의 허부 조직이 아니다. 이제는 ‘어차피 민주당’이라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누가 진정으로 새만금의 미래를 열고, 전북 경제를 살릴 실력과 비전을 갖췄는지를 따지는 ‘인물 중심’의 선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전북 정치가 중앙의 예측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시험대다. 정당의 깃발만 보고 투표하는 맹목적 지지자는 정당의 오만만 키울 뿐이다. 도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중앙당의 덧발 정치를 타파하고 전북의 정치적 몸값을 높일 수 있다. 무조건적인 충성 대신 냉철한 경쟁을 선택할 때, 비로소 전북은 정당의 소모품이 아닌 대한민국 정치의 당당한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독자투고

4분의 기적, 당신의 ‘용기’가 ‘생명’을 다시 뛰게 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은 단 4분이다. 심장이 멈춘 뒤 4분이 지나면 산소 공급 중단으로 인한 뇌 손상이 시작된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8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환자가 온전한 모습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결국 현장의 ‘최초 목격자’가 실시하는 즉각적인 응급 처치에 달려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미숙한 처치에 대한 불안과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시행을 주저한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심정지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이라는 사실이다. 시행 중 발생하는 외상은 회복이 가능하지만, 멈춘 심장과 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통해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면하며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효율적인 심폐소생술을 위해 세 가지만 기억하자. 첫째, 정확한 신고다. 의식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둘째, 중단 없는 가슴 압박이다. 가슴 중앙을 5-6cm 깊이로, 분당 100-120회 속도로 강하게 압박한다. 방법을 모르다면 119 상황실 요원의 전화 안내를 따르면 된다. 셋째, 자신감이다. 당신의 손길이 환자의 유일한 생명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심정지 사고의 절반이 가정에서 발생한다. 심폐소생술은 타인이 아닌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전문가의 손길을 기다리기보다 당신의 용기 있는 실천이 먼저 닿을 때, 멈춰 있던 심장은 다시 뛰 수 있다. 망설임 없는 그 손길이 기적을 만든다는 걸 기억하길 바란다.

무주소방서 대응예방과 소방사 오승우

오늘의시

꽃가게 앞을 지나며 / 문병란

그 꽃밭만큼이나 예쁜 이름을 가진  
온갖 꽃들이 진열된  
꽃가게 앞을 지나면  
사랑하는 사람아, 나는 문득  
너의 이름이 떠오른다.

진정 그리움이란  
진홍빛 장미꽃만큼이나  
간절히 타오르는 정열인 것이냐.

아름다운 것만 보면 문득  
푸른 하늘이 치어다 보이고  
거기 눈부신 이국풍  
아네모네의 이름보다 멀게  
너의 고운 미소 피었다 스러지나니.

삶의 외로움 나누는  
목마른 어느 길목에서  
나는 너의 조그만 미소를 구하여

이리도 간절히 발돋움해 애태운다.  
오라, 노을지는 꽃길 위에  
종종 걸음으로 왔다가 스러지는  
무수한 발자국 지우며  
봄과 함께 꽃내음 타고 올  
제비꽃 초롱 내 사랑하는 연인!

시인 약력 : 1935년 전남 화순 출생. 1961년 조선대 국문과 졸업하고 ‘현대문학’에 ‘가로수’, ‘밤의 호수’, ‘꽃밭’ 등이 추천되어 등단했다. 1990년 민족작가회의 이사, 1996년 5·18기념재단 이사등을 역임했고 ‘원탁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전남문학상, 요산문학상, 금호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간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소식은 전북타임스와 함께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구독신청 282-9603 기사제보 282-9600

# 정읍시, 전 생애 맞춤형 인재 양성 '총력'

지방소멸의 파고를 넘기 위한 정읍시의 핵심 해법은 '사람'과 '교육'이다. 정읍시가 청년 취업부터 농촌유학, 장학사업, 평생학습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 복지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막는 밀착형 취업 지원,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농촌유학 인프라 구축, 학부모의 경제적 짐을 덜어주는 촘촘한 장학사업, 지역대학과 연계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맞물려 가동한다. 이는 정읍에서 배우고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만드는 '교육-취업-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시의 의지다.

(편집자 주)



■ 청년인구 유출 막는 '청년취업시험준비반'... 42명 합격 성과 이어간다  
정읍시는 청년취업시험준비생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취업시험준비반'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사업 첫해부터 2025년까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을 투자했고, 올해는 이전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강화를 위해 교육발전특구사업비(도비) 5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읍시 평생학습관 3층에서 전문 교육업체인 ㈜에듀스파 박문각에 위탁해 양질의 강의와 상담을 제공하며 운영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공무원 직강(기본, 심화), 공무원 동영상, 공기업(NCS)반 등 3개 과정으로 세분화돼 수강생의 목표에 맞춘 전문 강의를 제공한다. 특히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도 자율학습실을 전면 개방해 학습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이러한 지원은 2023년 도입 이후 공무원 36명, 금융권 3명, 공기업 등 3명을 포함해 총 42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하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2026년 현재 기본반 23명, 심화반 40명, 동영상반 54명, NCS반 9명 등 총 123명의 수강생이 참여 중이며 시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 성공이 곧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는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

■ 지방소멸 대응 마중물, '농촌유학 가족제류형 거주시설' 철도면 일대 조성

타 지역 인구를 유입하고 농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농촌유학 가족제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도 본격화된다. 농촌유학 자녀를 둔 가구가 온 가족 단위로 이주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다. 해당 시설은 철도면 시산리 일대에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40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도비 6억, 시비 4억)이 투입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단독주택 10호와 주민 교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1동이 들어선다.

지난해 토지 매입과 공사 발주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준공 이후 농촌유학생 모집절차를 거쳐 8월 거주시설에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 초·중·고 교육지원사업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

## “지방소멸 돌파구는 교육” ‘교육-취업-정착’ 선순환 생태계 구축 미래 경쟁력 확보

정읍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8억 1850만원을 직접 지원하며, 정읍교육지원청에는 14억 2270만원을 지원한다.

초·중·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의 재능 육성과 무형유산 전승을 위해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 지원, 1인 1악기 교육, 정읍농악 활성화 교육을 지원한다. 또 우리 지역의 인문역사자원을 활용한 창의인재 육성 지원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을 위한 코딩 교육도 지원한다.

더불어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안전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쿨버스 요금 지원과 함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총 7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읍교육지원청에는 국제문화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협력지구사업, 학생들의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수상안전교육 지원 등 총 4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9억 규모 촘촘한 장학사업... 수도권 장학수 운영 및 맞춤형 학원비 지원

우수 인재 양성과 학부모의 공교육 밖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총 29억 7500만원(시 출연금 23억 7000만원, 재단기금 6억 500만원) 규모의 체계적인 장학사업을 정읍시민장학재단을 통해 연중 추진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장학금에는 13억 2500만원이 편성됐다. 대학 신입생에게는 생활 준비자금을 지원하며 재학생 우수인재 장학금은 선발인원을 매년 확대해 올해 최종 목표인 200명을 선발한다. 또한, 수도권 진학 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정읍장학숙' 운영에 9억 2,200만원을 투입해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총 98명

을 수용하며, 월 15~20만원의 저렴한 사용료로 기숙사를 제공한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업 지원에는 7억 28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전문 입시업체의 획일적인 교과수업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프린트인재육성사업'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인터넷 강의와 학원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15억 1100만원(국비 3억 5600만, 도비 8500만, 시비 10억 7000만)을 투입, 관내 7개의 청소년 전용시설에서 맞춤형 복지·활동 프로그램을 연중 가동한다.

■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대... 지역혁신(RISE) 체계 연계 시너지 극대화

시민 누구나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대 사업에 16억 9600만원(국비 4억 9500만원, 도비 1억 7100만원, 시비 10억 3000만원)을 투입한다.

평생학습관 및 여성문화관에서는 상반기 신규 6개 과목을 포함한 총 47개 과정의 프로그램(80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1:1 맞춤형 원스톱 취업 지원서비스,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새일 여성인턴 취업연계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원거리 지역 주민의 학습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모두배움터'와 성인 문해 교육 등을 운영하여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정읍시 대표 시민 강연 프로그램인 '단풍아카데미'에서는 문해배 전 헌법재판관 특강을 통해 법과 정의의 가치에 대한 깊은 울림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한 평생직업교육 강화가 주목된다. RISE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이며, 전북과학대(6억 1200만원)와 우석대(11억 2000만원)의 공모사업 선정은 기반으로 이주민·다문화 인재 활용, 쌍화차거리 활성화 등 5개 분야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고 함께 성장하는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들의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여 직업 역량을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수강료를 직접 지원하며 고등학생들의 진로·진학을 돕기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를 위한 '더 큰 나무 키우기 프로젝트'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의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170명에게 11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관내 45개소의 학원이 재능기부 형태로 동참하며 지역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더불어, '별별꿈 재능바우처 지원사업'을 54개소의 학원과 협력하여 교과 외 과목인 예능, 기술, 기예 분야 학원비 지원으로 6억 7500만원이 투입되고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의 7세에서 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 630명에게 11개월 동안 지원한다.

■ 청소년 전용시설 7개소 연중 운영...활동·보호·복지 빈틈없는 밀착 지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활동 공간인 청소년문화의집(문화체육관, 신대인청소년문화의집)과 종합 활동 거점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각각 2억 5400만원, 3억 65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동아리 활동 지원, 어울림마당, 청소년 우호교류, 유소년 수영축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억 90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1억 2800만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2억 2800만원을 투입해 지역 연계 협력력을 통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 위기청소년 심리·교육 지원, 학업 복귀와 1:1 맞춤형 상담,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에 2억 4600만원을 배정해 체험관 교육 및 찾아가는 성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며 청소년 보호망을 확고히 다진다.